

## 2004 온누리 리더십 축제 “플러그인” (Plug-in)

### 주제강의 4 - 멈출 수 없는 힘 어원 맥머너스 목사 (LA 모자이크교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윌리엄 월레스를 존경합니다. 그 영화에는 부와 귀, 영예를 누리고 태어난 로버트 부르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영화에서 로버트 부르스는 자기 백성을 자유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북 아일랜드의 벨파스를 방문하던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윌리엄 월레스를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음미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윌리엄 월레스가 아니라 로버트 부르스가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부르스가 임종을 맞을 때 그의 나라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심장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군이 그의 심장을 상자에 넣어 전투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장군의 전략이 실패해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그는 왕의 심장을 꺼내 적진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왕의 심장을 위해 싸우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된 리더십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의 심장을 위해 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접속된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라는 왕이 우리의 심장을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왕의 심장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왕의 심장을 따라 적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장군, 제임스 더글러스는 그날 전사했고 그의 시신 옆에 왕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옆에서 죽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까이 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접속된 리더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삶에 대해 우리는 세 가지 증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 하나님께 의해 가르침을 받음

첫째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된 자는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영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장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된 사람은 모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직접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생활을 10년 이상 했으면서도 뭔가를 얻어먹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마다 성경의 지식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제 아들 애론이 5살이었을 때 “아빠,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죠?”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겨우 5살인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계속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름 캠프에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캠프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아이와 싸우며 화가 나서 욕을 하고 그 아이를 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까지 애론은 자기는 미안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난거냐고 물으니 그 아이가 엄마를 욕했다고 말하며 누구든 엄마를 욕하면 스스로 처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애론은 이 수련회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사과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애론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다 싸서 차에 타기 전 우리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론, 네 안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리니?”라고 묻자 아이는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 같으냐고 하자 애론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애론, 그 사실에만 주목해. 넌 지금 네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아이는 그 사실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사과는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네 선택이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때 그 음성을 거부하면 너의 마음은 굳어질 거고 네 귀는 어두워질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거야. 하지만 그 음성에 따른다면 그 음성이 평생 너를 안내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접촉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음성을 따를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접촉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으로 부터 감동을 받음

두 번째 증거는 에스겔 36장 23~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의 백성 가운데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력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찌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찌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접촉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외부의 벽을 쌓아 그 안에 우리를 가둬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 때 우리는 비인간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할 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 모르며 순결함과 정직함이 없는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접촉하면 하나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없애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육신의 심장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안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교회에서 죄를 덜 짓는 훈련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기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 열정을 다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된 사람은 그 둘 중 누구일까요?

제 친구 중 마이크와 빌이 있습니다. 둘은 19살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동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생활 중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고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세례를 받으려 하자 사람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들은 동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은 사람 그 자체보다 죄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시 그들은 동거하고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맺지 않고 지내는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찾아온 그들이 이제 별거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묻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도 우리가 동거하는 것을 지적하며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 별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사람이 변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후 마이크는 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 자신이 성적표를 속여 왔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제적당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종의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의 부모님은 마

이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과 다른 인종의 여자를 사귀는 것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지고 크리스천으로 살지 말라고 했지만 마이크는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 줄 때 까지 혼자서 돈을 벌며 학업을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침내 수석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후 마이크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자 여자친구와 순결 서약을 한 후 5년 동안 부모님의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만지고 변화시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여야 합니다.

## 하나님께 영감을 받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셋째 증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내용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접속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움직입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환상과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꿈꾸는 자와 환상을 보는 자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와 교사가 넘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한 사람이 강의하고 여러 성도가 앉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꿈꾸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접속된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속의 리더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꿈꿀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의 거대한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 이런 기막힌 이야기가 펼쳐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여러분이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그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동체로 이루는 하나님의 꿈

어렸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싫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꿈속에서 그렇게 헤매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의 평균학점은 D였습니다. 무의미하기만 했던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버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들 저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비전을 볼 것입니다. 노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고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기로 결단하지 않는 한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책의 한국 번역본을 봤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쓰던 때 저는 타이핑을 할 줄 몰랐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의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님께서 2만 5천불 기금을 약속 하셨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2만 5천불을 조달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책을 쓰라는 권유하며 원고료로 2만 5천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손가락 두 개로 타이핑을 하니 1분에 칠 수 있는 단어가 한 단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마감일이 3주 남았을 때 까지 350쪽 중 20쪽을 썼습니다. 그 때 우리 교회의 한 자매가 제가 책을 쓴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타이핑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명 작가를 위해 일하고 있던 그녀는 1분에 250자를 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 하루에 3시간씩 만나서 45시간 만에 책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책을 쓰는 데는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적 공동체 안에 살지 않았다면 책 쓰는 일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약함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에워싸 주십니다. 여러분의 꿈이 순식간에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결코 여러분 혼자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접속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접속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 정리: 최문경pink1969@onnuri.or.kr

\* 출처: 온누리신문